

##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50주년을 맞이하며

사이타마 교구  
주교 다니 다이치(谷大二)

동일본 대재해와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재난지역의 부흥은 아직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사이타마 교구는 '모미노 끼(전나무)'를 하나의 거점으로 하여 활동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과 교회 바깥의 많은 분들의 협력,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이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개최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2년 10월 11일에 개최되어, 세 차례의 회의 기간을 갖고, 1965년 12월 8일에 폐회하였습니다. 공의회 50주년을 기념하여 베네딕도 16세께서는 2012년 10월 11일부터 2013년 11월 24일까지를 신앙의 해로 정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대부분의 공의회는 잘못된 가르침(오류)의 배척이나 가르침의 확인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이 공의회와 예루살렘 공의회(사도행전 15장)는 크게 [신앙의 문] (사도행전 14,27)을 열은 획기적인 공의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쇠신을 도모하고, 현대인에게 알맞은 형태로 복음을 살게 하며, 선교가 가능하도록 교회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는 갈라진 형제자매(종파를 넘어서 모든 그리스도교)들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바오로 6세의 개최연설)

이 공의회에서는 네 개의 헌장과 아홉 개의 교령, 세 개의 선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서도 중요한 것은 다음의 네 가지 헌장인 [교회 헌장], [계시 헌장], [전례 헌장], [현대세계 헌장]입니다. 이 헌장들의 공문서 전체의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① 초대교회로 돌아가기(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서를 소중하게), ② 전례의 쇠신(각 언어로 하는 미사), ③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신자 사도직의 확인), ④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교구의 독자성과 주교의 단체성), ⑤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대화, ⑥ 소외계층과의 연대, ⑦ 신앙의 자유의 확인, ⑧ 끊임없는 쇠신과 현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회의가 끝나면, 우리는(나가에- 長江 -주교) 거의 매일 밤, 「바~ 요나」(요나의 아들을 재밌게 이름 붙인 레스토랑. 공의회 기간 중에만 열었던 레스토랑)에 들렀어요. 친구 주교들과 와인을 마시면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주고 받았지요. 그곳에서 주고받은 내용들이 공의회 논의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었지요.”

“[전례 헌장]이 만들어질 때, 기자가 취재하러 왔지요. 전례의 각 언어화나 전례양식은 일본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묻더군요. 그 때 든 생각대로, 일본에서 예배의 형태는 이렇다고 말하며, 머리를 깊숙이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그것이 사진과 함께 기사가 되어서 세계로 퍼지게 되었지요. 결국, 일본의 예배 양식으로서 도입하게 된 것이지요.”

이 공의회에 의해서, 나가에 주교 자신도 회심하고 쇠신하게 되었습니다. 나가에 주교를 중심으로, 사이타마 교구에서 사목하고 있는 사제들도 이 공의회 정신에 의해서 회심하고 쇠신하게 되었지요. 저도 그 후예가 될 수 있겠지요. 많은 신자들도 공의회 정신을 본받아, 교회의 쇠신을 함께 짊어지고 와주셨습니다. 지금의 사이타마 교구의 모습은 아직 공의회 정신을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8개의 특징을 적잖이 표현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왔다고 봅니다. 제 자신도 사이타마 교구의 교회 이미지, 모델을 초대교회에 두고 걸어왔습니다.

지금, 공의회 개최로부터 50년이 흘렀고,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말조차 과거의 것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신도들도 그렇겠지요. 이를 계기로, 공의회 공문서, 특히 네 개의 헌장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읽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교회의 공부모임 등에서 사제나 수녀님들과 함께 읽으며, 배워 나아가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일본의 주교단이 발표해 온 메시지 등도 이를 기회로 다시 한 번 읽어 보아주신다면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 제 2 바티칸 공의회 정신으로 돌아가, 교회의 끊임없는 쇠신과 현대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